

나아만 내리티브에 나타난 종 모티프

— 어휘적, 문학적, 신학적 해석 —

이재원*

1. 들어가는 말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이야기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 가장 잘 알려지고 회자되는 것들 중의 하나이며,¹⁾ 또한 신학적인 것과 기교적인 면이 공존하는 성경 이야기로 유달리 적합한 예라 할 수 있다.²⁾ 이 이야기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다가, 포로로 잡아 온 어린 소녀의 정보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 치유를 얻고 개종하며, 반면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악행으로 오히려 심한 피부병을 얻는다는 골격을 갖고 있다.³⁾ 열왕기하 5장에 대한 주제 관련 선행 연구로는 나아만의 치유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 예시로 해석하거나,⁴⁾ 아람

*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M. Div. 과정 중. 현재 인하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jwonlee@inha.ac.kr.

- 1) A. 그램 올드, 『열왕기상·열왕기하』, 바클레이 패턴 구약주석, 장귀복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4), 204.
- 2) Robert L. Cohn, "Form and Perspective in 2 Kings 5", *Vetus testamentum* 33 (1983), 171-184.
- 3) 본 연구에서는 나아만과 게하시의 피부병을 '나병' 으로 서술하지 않고 '심한 피부병' 으로 명기한다. 그 이유로는 히브리어 '차라앗'이나 '메초라'는 각종 악성 피부 질환을 가리키는 말로서, 반드시 '나병'만을 뜻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새번역』 열왕기하 5:1 '나병' 난외 주); 본문의 나병은 전염되는 병이 아니고 27절에서 알려 주듯이 마른버짐을 가리키는 듯한데, 이 병이 심해지면 나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자는 사회에서 고립된다(왕하 7:4; 15:5; 레13:45-46 참조); 『관주·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5. 왕하 5:1-3 성서 해설). The Hebrew for leprosy was used for various diseases affecting the skin; also in verses 3, 6, 7, 11 and 27(NIV 왕하 5:1 각주); 유윤종, "차라앗, 레프라, 레프로스의 올바른 이해와 번역", 『성경원문연구』 36 (2015) 에서 나병 대신 "치명적인 피부병"을 제안함.
- 4) S. J. de Vries, *Prophet against Prophet: The Role of the Micaiah Narrative (1 Kings 22) in the Development of Early Prophetic Tradit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78), 53-54; T.

족속인 나아만의 치유를 이방인에 대한 복음 증거로 바라보거나,⁵⁾ 포로로 잡혀 온 어린 소녀의 역할에 주목하여 현대 신앙 공동체 속에서의 여성(소녀) 패러다임에 주목하거나,⁶⁾ 나아만이 고백한 이스라엘의 단일신론에 대한 것이다.⁷⁾ 열왕기서⁸⁾ 내러티브의 ‘모티프’ 관련 연구로는 엘리야-엘리사 내러티브에 대한 삶과 죽음 모티프 및 기만 모티프 연구가 각각 있으며,⁹⁾ 그 외에 구약의 예언서와 관련한 모티프 연구로는 감금 및 언어 장애 모티프의 연구가 있다.¹⁰⁾

열왕기하 5장의 선행 연구들은 내러티브의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상에 국한하여 수행한 것이 특징인 반면에, 본 연구는 열왕기하 5장 내러티브 전체의 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등장인물들, 플롯의 구성 그리고 수사 구조 각각에 함유되어 있다고 보는 ‘종’ 모티프의 도출을 시도하고, 이 모티프들이 ‘참다운 종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추적 논증하는 연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 설정이 열왕기하 5장이 포함된 열왕기서 전체의 저작 목적에 순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기에, 열왕기서에 대한 저작 배경(목적, 시기, 저자)을 선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바르(B. K. Bahr)는 열왕기서의 저작 시기를 562-536년(B.C.)으로 생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포로 된 여호와긴 왕이 바빌론 왕에 의하여 석방된 사건으로 열왕기서가 종료되어(왕하 25:27-30) 이 시점 이후가 되어야 하고, 또

-
- R. 흙스, 『열왕기하』, WBC 성경주석, 김병하 역 (서울: 솔로몬, 2008), 162에서 재인용.
- 5) G. Rawlinson, 『열왕기하(상)』, 풀빛성경주석, 박홍관 역 (대구: 보문출판사, 1990), 256; Walter A. Maier III, “The Healing of Naaman in Missiological Perspective”, *Concordia Theological Quarterly* 61 (1997), 177-196; Allan L. Effa, “Prophet, Kings, Servants, and Lepers: A Missiological Reading of an Ancient Drama”, *Missiology* 35:3 (2007), 305-313; W. Brueggemann, “2 Kings 5: Two Evangelists and a Saved Subject”, *Missiology* 35:3 (2007), 263-272; Emmanuel O. Nwaoru, “The Story of Naaman (2 Kings 5:1-19): Implications for Mission Today”, *Svensk missionstidskrift* 96 (2008), 27-41.
- 6) Jean Kyoung Kim, “Reading and Retelling Naaman’s Story (2 Kings 5)”,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0 (2005), 49-61.
- 7) Stuart Lasine, “‘Go in peace’ or ‘Go to Hell’? Elisha, Naaman and the Meaning of Monotheism in 2 Kings 5”, *Scandinavian Journal of the Old Testament* 25:1 (2011), 3-28.
- 8) ‘열왕기서’는 ‘열왕기상’ 및 ‘열왕기하’ 책 각각을 합친 전체를 의미한다.
- 9) Gary E. Yates, “The Motif of Life and Death in the Elijah-Elisha Narratives and its Theological Significance in 1Kings 17 - 2 Kings 13”, Faculty Publications and Presentations. Paper 12, Liberty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nd Graduate School, accessed 2 July 2018 from <http://digitalcommons.liberty.edu/>; Harry Hagan, “Deception as Motif and Theme in 2 Sm 9-20; 1 Kgs 1-2”, *Biblica* 60:3 (1979), 301-326; Michael Avioz, “The Motif of Beauty in the Books of Samuel and Kings”, *Vetus Testamentum* 59:3 (2009), 341 – 359.
- 10) 민유홍, “에스겔서의 감금 모티프와 언어장애 모티프”, 『성경원문연구』 38 (2016.4), 48-70.

한 바빌론의 포로 된 백성의 석방이 에스라 1장에 최초로 언급되어 있고 ‘열왕기하’에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¹¹⁾ 홉스(T. R. Hobbs)와 콘스터블(Thomas L. Constable)도 각각 동일하게 열왕기서는 바빌론 포로기의 산물로 보았다.¹²⁾ 이러한 저작 시기와 연루하여 바르는 열왕기서의 저자를 유다의 제2차 포로기에 생존한 선지자적 저자로 보았다.¹³⁾ 열왕기서의 주제에 대하여 그레이(John Gray)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및 그 백성들의 흥망성쇠를 전해주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열왕기서가 포함된 전기 예언서의 주제인 신명기 28:15 이하의 주제, 곧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재난이 가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⁴⁾ 홉스는 열왕기서 주제를 이스라엘과 유다 왕조의 실패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그 실패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¹⁵⁾ 바르는 “구원과 자유의 길은 오직 하나뿐이니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회개와 변화이고 깨트린 언약과 약속을 이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길밖에 없는 것을 확신시키려는 것”이라 하였다.¹⁶⁾ 이러한 열왕기서의 저작 목적을 요약하면 선지자적 활동상을 통하여 유다의 실패를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 회개를 통한 변화에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열왕기하 5장 나아만 내러티브에 대하여 ‘참다운 종은 누구인가?’라는 주제 설정은 열왕기서의 저작 목적에 순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나아만 내러티브의 열왕기하 5장의 줄거리와 구약과 신약의 정경이 각각 ‘종’ 모티프를 함유하고 있음을 살펴봄으로써 2장 이후의 ‘종’ 모티프의 도출 논증과 더불어 주제 논증의 지지 배경으로 삼고자 한다.

먼저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내러티브는 다양한 배역을 갖는 왕, 장군, 포로, 종 등의 다양한 신분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구약의 단일 내러티브로서는 보기 드문, 열 명 정도의 인물 배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등장인물들 중 일부는 복합적 성격을 보이고 있고,¹⁷⁾ 특히 ‘종’의 신분 자체는 아니더라도 종의 모습을 보이는 인물들이 내러티브 전반에 스케치되어 있다.

11) K. W. Bahr, 『열왕기상』, 랑계주석, 배영철 역 (서울: 백함출판사, 1979), 8.

12) T. R. 홉스, 『열왕기하』, 41; 토마스 칸스터블, 『열왕기상·하』, BKC 강해주석, 문동학, 이명준 역 (서울: 두란노, 2002), 8.

13) K. W. Bahr, 『열왕기상』, 25.

14) 존 그레이, 『열왕기상』, 국제성서주석, 한국신학연구소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19-23.

15) T. R. 홉스, 『열왕기하』, 29.

16) K. W. Bahr, 『열왕기상』, 25.

17) W. Alan Smith, “Naaman and Elisha: Healing, Wholeness, and the Task of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89 (1994), 205-219.

이러한 인물들로는 내러티브의 시작에서 등장하는 나아만의 부인을 섬기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 온 ‘어린 소녀’가 있다. 그녀는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결정적인 치유 기회를 제공하여 ‘종’의 모습을 제공한다(왕하 5:2-3). 아람 왕은 나아만을 이스라엘 왕에게 글로 소개할 때 ‘내 신하’라고 소개하는데 여기서 ‘신하’는 ‘종’을 뜻하는 히브리어 ‘에베드(עֶבֶד)’이다. 이런 나아만은 자신의 ‘종들’을 거느리고 치유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방문하는데 이들은 엘리사의 질병 처방 제안을 거절한 나아만에게 요단강 투장을 결단할 것을 종용하는 위협을 무릅쓰는 모습을 보여준다(왕하 5:13). 홉스는 내러티브 속에서 이 ‘어린 소녀’는 치료의 과정을 시작하고, 나아만의 ‘종들’은 그 치료의 과정을 완성하는 대구적 모습을 주목하였다.¹⁸⁾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한 진단(레 13:1-46)과 관리(민 5:2; 레 14:1-32)를 율법적으로 요구하는 심한 피부병 환자인 나아만이, 치료된 후에는, “크고 존귀한 자”(왕하 5:1)인 그의 기존의 모습과는 상반되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왕하 5:15)라고 말하여 자신을 ‘종’으로 낮춘 변화된 모습을 제시한다. 이 내러티브의 결말에 이르면 엘리사에게 순종하는 이방인 나아만과는 달리 그와 대척점에서 엘리사에게 표리부동한 기만행위로 불순종을 자행하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등장한다. 그가 나아만을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여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엘리사가 거절한 예물을 되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엘리사의 심한 피부병의 저주를 받는 모습(왕하 5:27)은, 기만하는 자의 모습을 보인다. 이외에도 엘리사의 심부름을 수행하는 ‘종’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다수 등장하는데 익명의 한 사람은 엘리사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전달하고(왕하 5:8), 마찬가지로 엘리사의 치유 메시지를 나아만에게 전달하는 사자(왕하 5:10)이다. 이외에도 게하시가 나아만을 뒤따라가서 예물을 취할 때 그를 동행한 다른 두 사환(왕하 5:23)이 더 등장한다. 선지자 엘리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종’으로, 본 내러티브에 주요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열왕기하 5장이 ‘종’ 모티프를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크다 할 것이다.

둘째, 정경적 구약 관점에서 ‘종’ 모티프의 존재 가능성을 고찰한다. 이사야서 40-48장은 포로기 때의 유다의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을 언급하고,¹⁹⁾ 이사야서 41:8-9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의 사랑의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새롭게 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개개인도 그의 ‘종’이 되도록 부

18) T. R. 홉스, 『열왕기하』, 166.

19) 윌리엄 반 게메렌, 『예언서 연구』,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16), 382.

르시며”,²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사 41:10) 고 말씀하신다. 이사야서 40:1부터 49:4에서는 이스라엘은 분명히 ‘여호와 의 종’으로 불리는데, 이 말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취급하시고자 하며,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지에서 흩어져 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취급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²¹⁾ 이것은 ‘종’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과 기대가 드러난 것이다.

셋째, 정경적 신약 관점에서 ‘종’ 모티프의 존재는 누가복음 4:27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심한 피부병 환자가 많았지만 오직 치유받은 사람은 이방인 나아만 뿐이라고 말씀하시며 유대인들의 패역함을 나무라실 때 나아만의 치유 사건을 인용하셨다. 흔히 하나님에 대한 패역의 원인은 참다운 ‘종’의 모습을 상실한 불순종의 상태에서 발생한다.

열왕기서는 교차대구법 구조를 갖고 있고 이 구조의 중심 단락인 X 단락(왕상 16:23-왕하 13:21)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²²⁾ 따라서 이들의 사역을 살피는 것은 구속사에서 근간을 찾는 일이며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찾는 일이다.²³⁾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내려티브를 대상으로 한 ‘종’ 모티프 및 ‘참다운 종은 누구인가?’라는 주제의 연구는 이러한 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전개 순서로 2장에서는 등장인물의 호칭에 대한 히브리어 어휘의 문법적 해석을 통하여 ‘종’ 모티프²⁴⁾의 존재를 확인하고, 3장에서는

20) Ibid., 416.

21) 존 와즈, 『이사야(하)』, WBC 성경주석, 강철성 역 (서울: 솔로몬, 2006), 216.

22) 열왕기서의 교차대구법은 다음과 같다. G. Sarvan, “1 and 2 Kings”, R. Alter and F. Kermode, eds., *The Literary Guide to the Bibl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148;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377에서 재인용.

A 솔로몬/통일 왕정(왕상 1-11장)

B 여로보암/르호보암 왕국분열(왕상 12-14장)

C 유다 왕들/이스라엘 왕들(왕상 15:1-16:21)

X 오므리 왕조: 바알 숭배의 흥기와 몰락(왕상 16:22-왕하 12:21)

C' 유다 왕들/이스라엘 왕들(왕하 13-16장)

B' 북방 왕국의 멸망(왕하 17장)

A' 유다왕국의 단독역사와 멸망(왕하 18-25장)

23) 김정우, 『너는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열정과 엘리사의 사랑 이야기』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14.

24) 본 연구의 ‘종’ 모티프는 ‘인물 모티프’에 해당한다. 그런데 문학에서 ‘인물 모티프’는 다양한 ‘모티프’ 중의 하나이다. 이재선, 『현대소설의 서사 주제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7), 466.

문학적인 접근으로 ‘내러티브에서 등장인물의 배역, 플롯, 그리고 수사학적 구문을 각각 분석하여 마찬가지로 ‘종’ 모티프가 함유되어 있음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이상에서 발견된 ‘종’ 모티프들을 통하여 ‘종’의 유형을 분류하고 내러티브의 주제가 ‘참다운 종은 누구인가?’로 귀결될 수 있음을 논한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 사용한 한글 성서는 『개역개정』을, 히브리어 성서는 BHS이다. 그리고 영어 성서는 해당 어휘나 구절에서 필요한 경우에 병기한다.

2. 어휘 분석을 통한 ‘종’ 모티프 이해

본 장에서는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종인 ‘어린 소녀’,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 수행한 ‘종’들, 엘리사의 ‘사환’ 계하시, 그리고 엘리사의 ‘사자’ 등의 인물 호칭이 ‘종’(עֶבֶד)으로 지칭되지 않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종’의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어휘들이 ‘종’ 모티프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어린 소녀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 드는 “어린 소녀”(נַעֲרָה קְטַנָּה)는 아람 사람들에 의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 온’ 자이다(왕하 5:2). 여기서 ‘소녀’(נַעֲרָה)와 유사한 의미의 구약의 용례로는 ‘젊은 미혼의 여자’(삼상 9:11; 왕상 1:3; 왕하 5:4; 욥 41:5; 룻 2:6, 8, 22; 에 2:4, 7, 9, 12), ‘여종’(창 24:61; 출 2:5; 삼상 25:42; 잠 9:3; 룻 3:2; 에 4:4, 16) 등이 있다.²⁵⁾ 또한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וַתְּהִי לַפְּנֵי אִשְׁתּוֹ נַעֲמָן, 왕하 5:2하)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녀는 나아만의 아내 앞에 있었다’로서, 관용적 의미는 ‘그리고 그녀는 나아만의 아내 앞에 섬기고 있는 중이었다’이다.²⁶⁾ 또한 “어린 소녀”(נַעֲרָה קְטַנָּה)는 나아만을 묘사하는 “크고 존귀한 자”(אִישׁ גָּדוֹל, 1절)²⁷⁾와 신분적인 표현이 상징적으로 대조되고 있다. 또한 “어린 소녀”가 수종 드는 나아만의 “여주인”(גַּבִּירָה, 3절)의 기본형 גַּבְרָתָה는 귀부인, 왕

25) HALOT, 707-708.

26) Rabbi A. J. Rosenberg, *II Kings* (New York: The Judaica Press, 1985), 271; C. F. 카일, F. 델리취, 『열왕기(하)』, 카일·델리취 구약주석, 박수암 역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79), 14-16.

27) 여기서 ‘1절’은 왕하 5:1을 의미한다. 이후 본 논문에서 왕하 5장의 구절 인용이 자주 나오는데 간략한 표기를 위하여 특정 구절의 인용 시는 이와 같이 성경 구절의 ‘숫자와 절’의 형태로 표기한다.

비, 여주인(창 16:4, 8, 9; 시 123:2; 잠 30:23; 사 24:2; 47:5, 7)을 지칭하는 용어와 동일하여,²⁸⁾ 나아만과 그 부인의 높은 지위를 암시한다. 따라서 잡혀온 “어린 소녀”는 이방 나라의 포로이며, 종이며, 여자이며, 어린 자로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1절) 부부가 조금도 귀히 여길 만한 어떤 부분도 없고 당시 사회적인 종들 가운데에도 아마도 가장 낮고 연약한 처지의 ‘종’임이 분명하여, ‘어린 소녀’는 본 내러티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종’ 모티프로 볼 수 있다.

■ 나아만의 종들

13절에서 나아만의 종들의 ‘종’은 명시적으로 עֶבֶד로 기술되어 있다. 이들은 나아만과 동행하여 이스라엘로 온 자들이다. 이들이 나아만을 ‘내 아버지’(אָבִי)라 부른 것은, 열왕기하 6:21과 사무엘상 24:12에서처럼, 순진한 충성심에서 우러나오는 친분 두터운 표현으로,²⁹⁾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나아만 아래에서 종의 역할을 하였기에 ‘종’ 모티프로 볼 수 있다.

■ 엘리사의 사자

엘리사를 방문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씻으면 치유될 것이라는 엘리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는 10절의 “사자”(『새번역』은 ‘사환’; NRS는 ‘messenger’)는 히브리어 מַלְאָךְ로 본문 중에 그는 익명으로 나타난다. 이 단어의 구약 유사 용례로는 창세기 32:3; 민수기 20:14; 열왕기상 19:2; 열왕기하 6:32 등이 있으며,³⁰⁾ 모두 주인의 심부름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 מַלְאָךְ는 메시지의 전달 성격에 따라서 개인적이거나 정치적이라고 구분이 가능한데, 본 경우에는 후자에 해당한다.³¹⁾ 그 이유는 나아만이 아람 왕이 보내는 외교 문서 성격의 글을 지니고 북이스라엘 왕을 찾아왔고(5-6절) 북이스라엘 왕은 이 일을 엘리사가 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עָבָד(20절)나 עָבָד(13절)와는 상이한 역할을 하기에 이 어휘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만약 ‘사자’(מַלְאָךְ)의 일을 맡은 자가 비록 선지자의 생도들(왕하 2:7; 5:22) 중의 하나라고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메시지 전달의 성격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그가 익명의 심부름꾼이든 생도이든 ‘사자’(מַלְאָךְ)는 엘리사의 지시를 충실히 섬겨야 하는 일을 수행하므로 ‘종’ 모티프로 간주할 수

28) 로고스 편집위원 편, 『NIV 구약원어 대조성경』(서울: 도서출판 로고스, 1993), 55.

29) C. F. 카일, F. 텔리취, 『열왕기(하)』, 64.

30) 빌헬름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이정의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1), 427.

31) TDOT, 312.

있다.

■ 엘리사의 사환

20절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으로 지칭되는 게하시가 나타난다. 여기서 ‘사환’(『새번역』은 ‘시종’; NRS는 ‘servant’)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עֶבֶד**는 앞서 살펴본 ‘종’ 모티프로 해석한 ‘어린 소녀’에서 ‘소녀’(עַלְמָה)의 남성형으로서 여러 모양으로 구약 용례가 있는데 유사 용례로는, 1) 자주 주인에게 속한 젊은 사람 혹은 목동(창 37:2; 욥 1:16), 2) 종, 하인 혹은 사환(창 18:7; 삿 19:9; 삼상 9:3; 30:17; 느 6:5), 3) 누구를 따르는 추종자, 부하(삿 7:11; 왕상 18:43; 왕하 4:12; 5:20)가 있다.³²⁾ 따라서 ‘사환’ 역시 앞의 ‘종’(עֶבֶד, 13절)이나 ‘사자’(מַלְאָכִים, 10절)와 함께 ‘종’ 모티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문학적 내러티브 분석을 통한 ‘종’ 모티프 이해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내러티브는 성경적 내러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어,³³⁾ 본 장에서는 내러티브의 등장인물의 배역, 내러티브의 플롯, 그리고 내러티브의 수사학적 구문에 대한 각각의 분석을 통하여 ‘종’ 모티프가 내러티브에 어떻게 함유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3.1. 내러티브의 등장인물의 배역에 의한 ‘종’ 모티프 이해

나아만 내러티브 속에는 열 명 가량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나아만(1-6, 9-23절), 나아만의 아내(2절), 이스라엘에서 잡혀 와 나아만의 아내의 종이 된 어린 소녀(2절), 아람 왕(5절), 이스라엘 왕(6-8절), 엘리사(8-10, 15-17, 25절), 게하시(20-25, 27절), 나아만의 종들(13절), 엘리사의 사자로 보이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10절), 그리고 게하시가 받은 뇌물을 나르는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환들(23-24절)이 있다.³⁴⁾

치솜(R. B. Chisholm Jr.)과 하워드(D. M. Howard Jr.)는 내러티브 속의 등장인물의 조명과 역할의 대소를 기준으로 배역을 네 가지로 구분하되,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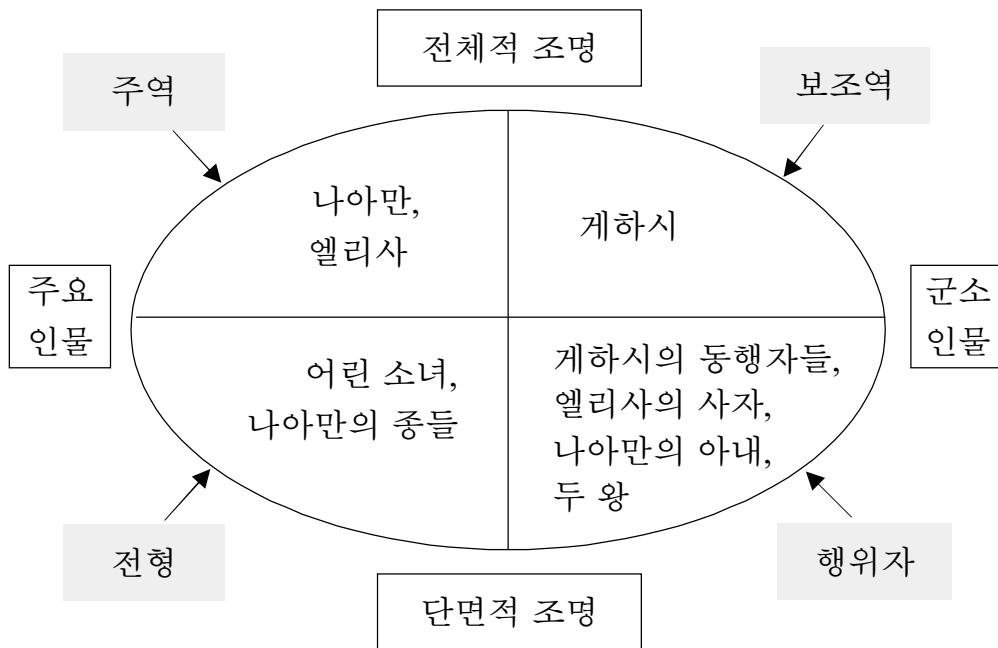
32) 빌헬름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514.

33) 고든 D. 피, 더글라스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광만, 박대영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16), 115.

34) T. R. 홉스, 『열왕기하』, 164.

명이 많고 역할이 큰 경우는 주역(full fledged), 조명이 많고 역할이 작은 경우는 보조역, 조명이 적고 역할이 큰 경우는 전형(type), 그리고 조명이 적고 역할이 작은 경우는 행위자(agents)로 분류한다(<그림 1> 참조).³⁵⁾ 그는 또한 주역은 전체적 조명을 받는 주요 인물, 보조역은 전체적 조명을 받는 군소 인물이며, 전형(type)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거나 피해야 할 특징적 요소를 보여 주는 배역이 되며 주요인물로 단면적 조명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고, 행위자는 이야기 완성에 필요한 제한된 역할만 하는 경우로 군소 인물로 단면적 조명을 받는 경우의 배역에 해당된다고 하였다.³⁶⁾ 이상의 기준에 따라서 나아만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배역을 구분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나아만 내러티브의 등장인물의 배역



여기서의 배역 분류는 본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세 개의 에피소드들과 연관이 깊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는 나아만을 치유하는 엘리사의 권능이 나타나며(1-14절), 두 번째에는 치유 결과로 인한 나아만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과 이 고백의 결과(15-19절), 그리고 세 번째에는 엘리사의 뜻과 상치되게 나아만의 예물을 거짓말로 취하여 심한 피부병의 저주를 엘리사로

35) 로버트 치숍, 데이빗 하워드, 『역사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류근상, 한정진 역 (고양: 크리스찬출판사, 2007), 28-29.

36) Ibid.

부터 받는 게하시의 이야기가 전개된다(20-27절).³⁷⁾ 이 세 개 중에서 나아만과 엘리사는 전 에피소드에서 조명을 받고 있으며, 게하시는 세 번째에만 그 이름이 등장하여 전체적인 조명은 나아만, 엘리사 그리고 게하시가 받으나 ‘주역’은 나아만과 엘리사 그리고 ‘보조역’은 게하시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단편적인 조명은 나머지 인물들이며 이스라엘과 아람의 두 왕(4-7절)은 단지 정치적인 배경으로만 나타나고,³⁸⁾ 나아만의 아내(2절), 엘리사의 사자(10절), 게하시의 동행자들(23-24절)은 어떤 대사도 없이 단지 단순한 심부름의 역할만 하고 있기에 이들은 ‘행위자’로 간주할 수 있다. 8절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의 메시지를 가져간 익명의 전달자는 <그림 1>에서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는데 그도 ‘행위자’에 속한다 할 것이다. 나아만에게 심한 피부병에 대한 치유의 결정적 정보를 제공한 ‘어린 소녀’와 나아만의 요단강 투강 치료 처방을 거절한 것을 돌이키게 한 ‘나아만의 종들’은 충성된 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므로 ‘전형’으로 분류가 가능하고 이 배역은 모든 배역 중 가장 강력하게 ‘종’ 모티프를 제시한다고 할 것이다.

3.2. 내러티브의 플롯(plot)에 의한 ‘종’ 모티프 이해

본 내러티브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세 개의 에피소드를 갖고 있지만 첫 번째 에피소드(1-14절)는 그 자체적으로 하나의 완성된 내러티브인 듯이 보인다.³⁹⁾ 이 에피소드에는 아람의 “큰 용사”(1절)의 치명적인 질병은 개인이나 국가의 위기임과 동시에 본 에피소드의 발단 단계를 구성하고, 그의 심한 피부병은 치유되어 위기는 해결이 된다.

두 번째 에피소드(15-19절)에서는 치유된 나아만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엘리사에게 치료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제공할 뜻을 보이고, 엘리사는 이 예물을 거절한다. 그리고 나아만은 자신이 고국에 귀향해서는 자신의 신을 섬기게 되는 사정에 대한 양해를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제시된다. 그리고 나아만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15절)라고 말한다. 이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요단강 투강을 거절한 것에 대한 자신의 미련함과 불순종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권능을 가져온 엘리사에 대하여 기꺼이 ‘종’으로 헌신하고자 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종’ 고백은 ‘종’ 모티프가 또 다시 등장한 것으로

37) Robert L. Cohn, “Form and perspective in 2 Kings 5”, 171-184.

38) Ibid.

39) Ibid.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아만이 치료된 직후 그의 예물 제공 시도와 ‘당신의 종’ 고백 사건인 두 번째 에피소드는 첫 번째 에피소드 자체가 하나의 내러티브로 종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러티브의 확장에 기여하며 세 번째 에피소드의 배경을 제공한다.

세 번째 에피소드(20-27절)는 게하시에 의한 새로운 위기와 이의 해결과 결말이 제시된다. 게하시는 엘리사에 의하여 거절된 예물을 나아만을 따라가서 거짓말로 그 예물을 회수하고 귀가하지만 엘리사는 영감으로 이를 알고 게하시를 심한 피부병으로 저주한다. 여기서 게하시가 자신이나 엘리사나 어느 누구를 위한 물리적 이익을 위하든 그가 나아만에게서 예물을 거짓말로 받아 온 것은 엘리사의 뜻과는 상충되는 거짓되고 불충성의 행위를 보여 주어 또 하나의 ‘종’ 모티프를 함유하는 에피소드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내러티브의 플롯은 ‘종’ 모티프를 중심 동력으로 사용하여 세 개의 에피소드로 확장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3.3. 내러티브의 수사학적 구조를 통한 ‘종’ 모티프 이해

나아만 내러티브(열왕기하 5장)는 교차대구법 구조를 이루는 열왕기서⁴⁰⁾의 중앙인 X 단락(왕상 16:22-왕하 12:21)에 위치하여, 수사학적인 면에서 그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엔건(Lai Ling Elizabeth Ngan)은 나아만 이야기 자체의 수사학적 구조를 인클루시오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보았으나,⁴¹⁾ 본 논문은 나아만 내러티브가 아래와 같은 교차대구법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이를 ‘종’ 모티프에 대한 관점에서 논증한다.

- A 주인(나아만)이 심한 피부병 환자임(1절)
- B 주인(나아만)이 종(여종)의 충성된 조언을 수용함(2-9절)
- C 나아만이 엘리사의 제안을 거만하게 거절함(10-12절)
- D 종들이 주인(나아만)을 설득함(13절)
- E 나아만이 순종하여 치유됨(14절)
- D' 나아만이 스스로 종 됨을 보임(15-16절)
- C'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겸손하게 요청함(17-19절)
- B' 주인(엘리사)이 종(게하시)의 기만적 행동을 책망함(20-26절)
- A' 종(게하시)이 심한 피부병 환자가 됨(27절)

- AA' : 심한 피부병을 갖고 있는 크고 존귀한 주인(나아만)과 심한 피부

40) 열왕기서의 교차대구법 구조는 각주 22를 참조할 것.

41) Lai Ling Elizabeth Ngan, "2 Kings 5", *Review & Expositor* 94 (1997), 589-597.

병을 얻은 저주받은 종(게하시)이 대구적임.

- BB’: 종(어린 소녀)의 충성된 조인이 수용됨과 종(게하시)의 기만적인 행동이 책망됨이 대구적임.
- CC’: 종이 되기 전의 주인(나아만)의 오만(요단강 투장을 거절함)과 종이 된 후의 겸손(이스라엘의 흠을 가지고 갈 것과 신당 예배도 허락해 줄 것을 요청)이 대구적임.
- DD’: 종들의 권유를 받는 나아만과 그 결과 엘리사의 종임을 자처하는 나아만.

본 내러티브의 시작과 끝의 양단에 해당하는 구절 AA’에는 ‘심한 피부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을 상징하며, 당시 사회에서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분류하여 이스라엘에서는 사회적으로 격리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민 5:2). 따라서 본 내러티브의 시작과 끝에 ‘심한 피부병’이 언급되어 있음은 본 이야기 전체가 심각한 내용을 함유하고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읽기 시작할 때에 강한 흥미를 유발하고 종료 시에는 긴 여운을 남길 수 있다. 또한 심한 피부병을 가진 자의 특징이 A에서는 이방인(아람인)이며, 사회적 지위가 높고(아람 왕의 군대 장관, 큰 용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자(여호와께서 조국 아람을 구하게 하심)이나, A’에서는 이스라엘인이요(게하시), 사회적 신분이 낮은 종(선지자의 종)이요, 심한 피부병을 득하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소멸되는 자라는 점에서 각각 대조적인 모습으로 교차대구적인 면이 강하게 상승됨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대조는 종 게하시를 통한 ‘종’ 모티프에 정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 모티프는 또한 AA’에서 DD’로의 동심원적 배열의 방향성에서도 발견된다. AA’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아람 왕과 사회적 지위가 종인 게하시로 이야기가 감싸진 상태에서 BB’에서는 B에서 한(나아만) 가정 내 구성원인 어린 소녀의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묘사되고, B’에서는 선지자의 공동체의 구성원인 종 게하시의 주인에 대한 기만적 행동이 부각되어 ‘종’ 모티프가 심화됨을 엿볼 수 있다. CC’에서 나아만이 요단강 투장을 거절하는 오만함을 보이는 장면과 치유된 이후에 스스로를 ‘종’이라고 고백하고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맹세하는 모습은 ‘종’된 이후의 놀라운 나아만의 태도의 반전으로 ‘종’ 모티프가 내러티브의 극적 상황을 구축하고 있다. DD’에서 낮은 신분의 나아만의 종들이 주인 나아만에게 위협을 무릅쓰고 요단강 투장을 권유하는 모습과, 높은 지위의 나아만이 ‘당신의 종’이라고 엘리사에게 자신을 낮추는 쉽지 않은 고백의 행동은 또 다른 ‘종’ 모티프를 제시

하고 있다. 내러티브는 교차대구법의 동심원 구조의 핵심부인 E에 도달하는데 E는 나아만이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하여 불치의 병인 심한 피부병이 치유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AA', BB', CC', 그리고 DD' 각각이 모두 '종' 모티프 선상에서 대구를 이루면서 네 겹으로 그 심층부 E를 감싸는 모습을 보여 단순한 일반적인 교차대구법 수사 구조보다 더 강한 의미를 함유하는 특이성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4. '종' 모티프를 통하여 제시된 주제: 종의 유형

앞서 관찰한 '종' 모티프는 본문 속에서 다양한 '종'의 모습과 연계되면서 내러티브의 일차 독자로 보이는 바빌론 포로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어떤 '종'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살아야 할지를 반추하도록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 본 장에서는 상기 도출된 '종' 모티프를 기반으로 '종'의 유형을 분류하되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 기만적인 종, 중립적인 종, 그리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변화되는 종으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4.1. 충성된 종

첫 번째 유형은 '충성된 종' 유형으로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인 “어린 소녀”(2절)가 말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심한 피부병을 고치리이다”(3절)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선지자가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 고치리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text{אִם־יִשְׁׁלַח־אֱלֹהִים־לְפָנָיו}$ 의 אִם 는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이는 ‘그러면’(then)이라는 의미로 번역 가능하여, 치료자로서의 엘리사의 평판은 그녀가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사마리아에 아주 넓게 퍼졌음을 보여 준다.⁴²⁾ 그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만의 아내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충성을 보이므로 나아만의 절실한 심한 피부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보여 주었다.⁴³⁾ 브루그만(W. Brueggemann)은 14절에서 나아만의 피부병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말한 내용 중에 ‘어린 아이’(נַעֲרָה קטנה)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린 소녀’(נַעֲרָה קטנה)의 히브리어 단어와 남성형-여성형

42) HALOT, 26.

43) Joseph S. Exell, *I & II Samuel, I & II Kings*, The Biblical Illustrator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5), 71.

으로 대응하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며, 본 내러티브에서 어린 소녀는 엘리사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질 나아만의 치유의 전조로 그녀는 천진난만하며(*innocent*), 잘 믿으며(*trusting*), 전인(*whole person*)적인 모습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았다.⁴⁴⁾ 이 소녀의 성품은 나아만의 심한 피부병에 대하여 충성심과 염려를 불러일으켰다.⁴⁵⁾ 이러한 ‘어린 소녀’의 대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에서의 진실한 모습은 포로기의 내러티브의 일차 독자들에게 자신들의 과거의 삶의 모습에 대한 대조의 기회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충성된 종의 모습은 사회적 신분상으로 종의 상태에 있는 어린 소녀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8, 14, 15, 20절)으로 묘사되는 엘리사의 하나님의 충성된 선지자적 ‘종’의 사역 모습 속에서도 발견된다. 첫째,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으로 말미암아 아람과의 전쟁의 오해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8절)라고 말하여 이스라엘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진실한 종의 모습을 보인다. 둘째, 나아만을 직접 만나지도 않고 요단강 물이 심한 피부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이나 아람 사람이 모두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을 그 강에서 씻어 고침을 받도록 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선지자의 기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⁴⁶⁾ 셋째, 나아만이 치유된 후에 그를 만나러 와서 예물을 주려고 할 때 이를 거절한 것도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⁴⁷⁾ 왜냐하면 이방 제사장들은 속여서라도 많은 선물을 받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방 제사장들과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⁴⁸⁾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심한 피부병의 저주가 임하게 한 것(27절)도 하나님의 종으로 불의한 것에 대한 신명기적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2. 지혜로운 종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13절) 속에서 우리는 나아만과 동행하던 종들의 지혜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종들은 엘리사의 요단강 치료

44) W. Brueggemann, *1 & 2 Kings*,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2000), 334.

45) A. 그램 올드, 『열왕기상·열왕기하』, 206.

46) K. W. Bahr, 『열왕기하』, 137.

47) A. 그램 올드, 『열왕기상·열왕기하』, 206.

48) K. W. Bahr, 『열왕기하』, 137.

법에 그만 화가 나서 귀국하려고 발길을 돌리는 나아만에게 치유의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종의 신분으로 주인에게 간절히 설득하며 간구하는 말을 해야 했다. 13절에서 ‘말하여’에 해당하는 דַּבַּר 의 동사는 דַּבַּר 의 강조 능동형인 Piel형 דִּבְּרָה (49)의 3인칭 복수 미완료형으로 그 일반적인 뜻은 ‘말하다(speak)’이나,⁵⁰ 보다 구체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본문에서는 문맥상 ‘갈망하다(desire)’, ‘요구하다(demand)’⁵¹, ‘친절하게 말하다(speak kindly)’⁵²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나아만의 종들은 공적인 횡포를 최종적으로 받는 말단의 경험이 주인보다 더 많았기에 이런 문제에 잘 대처하는,⁵³ 지혜로운 모습을 보인다. 둘째, 종들이 나아만에 대하여 “내 아버지여”라고 부른 것은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공손한지 알려 준다.⁵⁴ 이런 호칭은 신임받는 종들의 입에서 찾아보기 어렵지 않은 친밀한 용어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 시에 그를 부를 때에 사용한 호칭이기도 하다.⁵⁵ 이 종들은 화가 난 주인의 분노를 지혜로운 말로 충언을 하여 주인의 치료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 종들은 나아만의 어리석은 자존심을 번복시키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담대한 종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또한 13절의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에서 ‘나아와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קָרַב 는 קָרַב 의 칼(Qal) 3인칭 남성 복수 미완료형에 연속의 ‘와우’(ו) 접속사가 결합된 것으로 קָרַב 는 ‘다가오다(come near)’, ‘접근하다(approach)’의 뜻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그 위치에 맞는 경의를 표하면서 접근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용례(창 27:22; 44:18; 45:4; 수 14:6; 24:1)⁵⁶와 동일하다. 이러한 모습은 나아만의 종들이 지혜로운 모습 외에도 겸손하고 신실하고, 정직하며, 헌신된 종의 모습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⁵⁷

4.3. 기만적인 종

엘리사의 남종 게하시는 피부병이 치료된 후에 고향 아람으로 귀국 길에 있는 나아만을 쫓아가서 엘리사가 받기를 거부한 선물을 기만적으로 획득

49) דַּבַּר 는 Piel형, Pual형, Hithpael형, 그리고 Qal 분사형으로만 거의 사용된다.

50) R. 레어드 해리스, 글리슨 L. 아쳐, 브루스 K. 윌트케, 『舊約原語新學辭典(上)』, 요단출판사 번역위원회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6), 399.

51) TDOT, 97.

52) HALOT, 210.

53) A. 그램 올드, 『열왕기상·열왕기하』, 206.

54) K. W. Bahr, 『열왕기하』, 137.

55) G. Rawlinson, 『열왕기하(상)』, 219.

56) TDOT, 215.

57) Joseph S. Exell, *I & II Samuel, I & II Kings*, 104.

하였다. 그의 기만은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22절)라고 선물이 갑자기 필요한 이유를 그럴듯하게 제시한 것이며, 획득한 물건은 은 두 달란트와 옷 두벌이었다(23절). 그는 의도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주인과 반대 위치에 섰는데,⁵⁸⁾ 그를 안달나게 한 것은 나아만이 것처럼 대가 없이 은혜를 받은 점이다(20절).⁵⁹⁾ 그러나 종은 주인이 받지 않은 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⁶⁰⁾ 엘리사는 “이 아람 사람”의 선물을 거절한 반면, 게하시의 이득을 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게하시의 기만은 나아만으로부터 선물을 취한 이후 엘리사를 만났을 때의 다음의 대화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다.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25절). 이러한 게하시의 계속되는 악행은 그가 속이는 재주를 상당히 많이 부렸음을 말해 준다.⁶¹⁾ 이러한 일련의 위선적 행동은 주인 엘리사에게 발각되어 나아만의 저주인 심한 피부병의 저주가 그 자손과 더불어 게하시에게 미쳐 “심한 피부병이 발하”게(27절) 된다. 이로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기만하고 능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날 경우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본 내러티브의 독자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이러한 경고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은 여호와께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저주로 내리신 것임을 상기하도록 의도한 열왕기서 저자의 의도일 수 있다.⁶²⁾ 게하시의 열왕기하 4:31에서 수넬 여인의 아들에게 달려가서 엘리사의 명으로 엘리사의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는 충실한 생명의 심부름꾼 역할도 했었던 자이다. 주인에게 충성된 삶을 살던 종이래도 신임을 얻은 후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기만적인 종’의 자리로 전락할 수 있음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은 게하시로부터 배울 수 있었을 것이며 여전히 오늘날에도 음미할 수 있는 바라 할 수 있다.

4.4. 중립적인 종

열왕기하 5:10에서 엘리사를 방문한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NRS, ‘messenger’)가 등장한다. 그는 단지 요단강에 몸

58) T. R. 홉스, 『열왕기하』, 29.

59) Ibid.

60) A. 그램 올드, 『열왕기상·열왕기하』, 208.

61) G. Rawlinson, 『열왕기하(상)』, 266-267.

62)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445.

을 일곱 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메시지만 전달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 이 종은 충성도 배반도 아닌 ‘중립적인 종’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사자’에 대한 히브리어 어휘와 구문론적 해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가 외교적이거나 의전적인 성격의 심부름을 수행한 것을 상기한다면 그의 중립적인 ‘종’의 성격 분류는 타당성을 갖는다 할 것이다.

4.5. 개종의 종

마지막 종의 유형인 ‘개종의 종’ 유형은 이방인으로 스스로 종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충성하는 나아만의 태도 변화에서 발견된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불순종한 첫째 이유는, 자신은 당시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던 아람 국가의 “큰 용사”(1절)로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의 왕도 직접 만날 수 있는 높은 신분임에도, 엘리사가 그를 직접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의 사자로부터 치유 방법을 전해 듣고(10절)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심리적인 점이다. 둘째 이유는 엘리사가 치유를 위하여 투강을 권한 요단강이 자신의 고향의 다메섹 강들보다 결코 우월하지 못하다는 물리적인 이유이다(12절). 다메섹 강은 매우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며,⁶³⁾ 요단강은 탁하고 진흙 빛의 강이다.⁶⁴⁾ “큰 용사”(1절) 나아만은 개인적인 영접과 적절한 종교적 의식(“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11절)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고, 그는 화가 나서 발걸음을 돌렸다.⁶⁵⁾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종들의 권유를 수용하였다. 이는 곧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또한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순종으로 나아감을 뜻한다. 하나님은 나아만처럼 현재의 자신의 지위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는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신다.⁶⁶⁾ 사실 나아만의 순종의 모습은 이미 그가 엘리사의 집에 도달했을 때(9절) 나타났는데, “문에 서니”(עָמַד בְּפֶתַח הַבַּיִת)는 수넴 여인의 행동(왕하 4:12)과 너무나도 유사한 나아만의 행동으로 그가 선지자를 존경한다는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⁶⁷⁾

63) G. Rawlinson, 『열왕기하(상)』, 219.

64) Robinson, *Researches*, vol. ii. 256; G. Rawlinson, 『열왕기하(상)』, 219에서 재인용.

65) A. 그램 올드, 『열왕기상·열왕기하』, 206.

66) 토마스 칸스터블, 『열왕기상·하』, 197.

67) T. R. 홉스, 『열왕기하』, 172.

5.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열왕기하 5장 전체의 나아만 내러티브가 ‘종’ 모티프를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를 도출하고 이 모티프에 기반하여 ‘참다운 종은 누구인가?’를 본 내러티브의 주제로 설정하고 논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론에서는 이 주제가 열왕기하 전체의 주제와 충돌하지 않고 순응하고 있음과 또한 구약과 신약의 정경적 ‘종’ 모티프가 나아만 내러티브의 본문 속에 함유된 ‘종’ 모티프의 존재를 지지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론에서는 나아만 내러티브 본문에 함유된 ‘종’ 모티프를 다양한 분석 관점에서 드러내고, 이에 따라 ‘종’의 유형을 분류하여, 설정한 주제가 타당함을 기술하였다.

‘종’ 모티프의 존재를 규명하는 첫 번째 관점으로는 내러티브에 대한 문법적 접근이다. 본문 속의 “어린 소녀”(עַלְוָה קַטְנָה)(2절), 나아만의 “종”(עֶבֶד) (13절), “사자”(מַלְאָךְ)(10절),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עַבְדֵי) (20절) 어휘들에 대한 히브리어 용례 해석과 필요한 경우 구문론적 해석을 수행하여 이들이 호칭적으로는 ‘종’(עֶבֶד) 어휘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내러티브 내의 삶의 정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종’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종’ 모티프가 된다고 간주하였다. 둘째 관점은 내러티브의 등장인물들에 대한 배역 분석으로 ‘종’ 모티프가 강하게 드러나는 배역을 찾아보았다. 배역은 주역, 보조역, 전형, 그리고 행위자의 네 가지로 분류 가능하였고 이 중에서 ‘어린 소녀’와 ‘나아만의 종들’이 등장인물 가운데에 충성된 ‘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종’ 모티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전형’ 배역으로 해석하였다. 셋째 관점은 내러티브가 ‘종’ 모티프를 축으로 세 개의 에피소드들로 구성되는 ‘플롯’ 구조를 보인다고 해석하였다. 넷째 관점은 열왕기하 5장 나아만 내러티브는 ‘종’ 모티프를 중심으로 교차대구법을 구성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본 교차대구법의 특징은 일반적인 경우와 상이하게, 부가적으로 각각의 대구절 속에서 공통적으로 ‘종’ 모티프가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아가 나아만의 치유를 언급하는 교차대구법의 중심인 X 단락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강하게 ‘종’ 모티프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발견한 ‘종’ 모티프들을 통하여 본 연구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종’을 분류하였다. 첫째 유형은 ‘충성된 종’으로, 이스라엘에서 잡혀와 나아만의 심한 피부병의 치유의 길을 열어 준 ‘어린 소녀’이다. 둘째는 ‘지혜로운 종’의 유형으로 나아만의 요단강 투쟁 거절 의지를 변화시켜 그의 심한 피부병의 치유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나아만의 종들’이다. 물론 선지자 엘리사 자신도 이 유형에 해당한다. 셋째, ‘기만적인 종’의 유형은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이다. 넷째, ‘중립적인 종’ 유형은 나아만에게 요단강 입수 메시지를 어떠한 가감 없이 전달한 엘리사의 사자이다. 다섯째는 ‘개종의 종’의 유형으로 자신의 과거의 실패를 인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신의 종’이라 자신을 낮추며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간 나아만 자신이다.

열왕기서의 일차 독자들은 당시 바빌론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절망 가운데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게하시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한 표리부동한 모습에서 자신들의 지난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나아만의 순종을 통한 회개와 치유의 경험 이야기에서는 나아만처럼 변화와 순종을 통한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방을 기다리며 위로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의 삶 속에 자신도 모르게 게하시처럼 물질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왜곡하거나 사실상의 귀머거리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유다 백성처럼 고통스러운 영적 바빌론의 포로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다양한 모습의 ‘종’ 모티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죄의 종(갈 4:9)과 충성된 종의 길 사이에서 어느 길을 택할지는 나아만 내러티브를 통하여 도전과 교훈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민 12:7), 다윗(삼하 7:5, 8), 그리고 선지자들(렘 7:25)을 ‘종’이라 부르시며 존귀와 친밀감, 그리고 구속사 발전상의 특별한 위치를 부여하셨는데,⁶⁸⁾ 우리도 그런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설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기여는 나아만 내러티브(왕하 5장)의 주제를 나아만의 치유를 통한 하나님의 권능 예시적 사건이나 어린 소녀를 통한 이방으로의 복음 확장 등과 같이 특정 에피소드에 편중하지 않고 전체 내러티브를 관통하는 ‘종’ 모티프를 어휘적 그리고 문학적 분석을 통하여 발견(도출)한 것이다. 만약 ‘참다운 종은 누구인가?’라는 주제가 발견된 사실을 최상으로 설명해주는 주제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종’ 모티프의 함유는 당연하다. 따라서 ‘참다운 종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는 최상의 주제라고 추정할 이유가 있다.⁶⁹⁾ 또한 성경 원문에 대한 대체 어휘에 대한 기여로는 קָטַנָּה קַטְוָה의 기존

68) 윌리엄 반 게메렌, 『예언서연구』, 416.

69) 본 연구의 이러한 새로운 주제 제시 방법은 ‘발견된 사실’에 대한 ‘최상의 설명(지식 틀)’을 찾아내는 추론법인 ‘가추법(abductive reasoning)’을 따른 것이다. 이 추론법은 찰스 퍼스(Charles S. Peirce)가 처음 제시한 것으로 흔히 과학자들이 관찰된 현상에 대한 ‘최상의 설명’을 제시하는 ‘지적 틀(이론 또는 가설)’을 찾아낼 때 사용한다.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E. McGrath)는 이 방법이 과학이외에 법 이론과 기독교 변증에서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 추론법은 간단히 다음과 같은 추론 단계를 따른다. The surprising fact, C, is observed. But if A were true, C would be a matter of course, Hence, there is reason to suspect that A is true. 참조: Charles Hartshorne and Paul Weiss, eds.,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naders Peirce*, vol. 5

번역인 “어린 소녀”(2절)는 ‘어린 하녀’ 또는 ‘어린 여종’을, אֲנָשִׁים의 기존 용어인 “사자”(10절)보다는 ‘전령(傳令)’(외교적이거나 의전적 의미를 갖기 때문임) 또는 ‘메신저’를⁷⁰⁾, 그리고 현대에서 사용을 거의 하고 있지 않아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있는 אָנָשׁ의 기존 단어인 “사환”(20절) 대신 ‘하인’을 각각 제안해 본다.

<주제어>(Keywords)

종, 모티프, 나아만, 내러티브, 교차대구법, 가추법.

servant, motif, Naaman, narrative, chiasmic structure, abductive reasoning.

(투고 일자: 2018년 7월 27일, 심사 일자: 2018년 8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18년 10월 25일)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189; 알리스터 맥그래스,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기독교 변증』, 전의우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8), 140-146에서 재인용; Wikipedia, “Abductive reasoning”, <https://en.wikipedia.org> (2018.8.31.).

70) ‘국립국어원(www.korean.go.kr)’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된 어휘임.

<참고문헌>(References)

- 『관주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5.
- 로고스 편집위원 편, 『NIV 구약원어 대조성경』, 서울: 도서출판 로고스, 1993.
- 게제니우스, 빌헬름,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이정의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1.
- 김정우, 『너는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열정과 엘리사의 사랑 이야기』,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 맥그래스, 알리스터,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기독교 변증』, 전의우 역, 서울: 국제 제자훈련원, 2018.
- 민유홍, “에스겔서의 감금 모티프와 언어장애 모티프”, 『성경원문연구』 38 (2016.4), 48-70.
- 반 게메렌, 윌리엄, 『예언서 연구』,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16.
- 올드, A. 그램, 『열왕기상·열왕기하』, 바클레이 패턴 구약주석, 장귀복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4.
- 유윤종, “차라앗, 레프라, 레프로스의 올바른 이해와 번역”, 『성경원문연구』 36 (2015), 206-230.
- 이재선, 『현대소설의 서사 주제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7.
- 치솜, 로버트, 하워드, 데이빗, 『역사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류근상, 한정진 역, 고양: 크리스찬출판사, 2007.
- 카일, C. F., 텔리취, F., 『열왕기(하)』, 카일·텔리취 구약주석, 박수암 역,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79.
- 칸스터블, 토마스, 『열왕기상·하』, BKC 강해주석, 문동학, 이명준 역, 서울: 두란노, 2002.
- 피, 고든 D., 스텐어트, 더글라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광만, 박대영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16.
- 해리스, R. 레어드, 아처, 글리슨 L., 윌트케, 브루스 K., 『舊約原語新學辭典(上)』, 요단출판사 번역위원회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6.
- 홉스, T. R., 『열왕기하』, WBC 성경주석, 김병하 역, 서울: 솔로몬, 2008.
- Avioz, Michael, “The Motif of Beauty in the Books of Samuel and Kings”, *Vetus Testamentum* 59:3 (2009), 341-359.
- Bahr, K. W., 『열왕기상』, 랑게주석, 배영철 역, 서울: 백함출판사, 1979.
- Botterweck, G. J., Ringgren, H., and Fabry, H.,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 Brueggemann, W., *1 & 2 Kings*,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 Smyth & Helwys Publishing, 2000.
- Brueggemann, W., “2 Kings 5: Two Evangelists and a Saved Subject”, *Missiology* 35:3 (2007), 263-272.
- Cohn, Robert L., “Form and Perspective in 2 Kings 5”, *Vetus testamentum* 33 (1983), 171-184.
- De Vries, S. J., *Prophet against Prophet: The Role of the Micaiah Narrative (1 Kings 22) in the Development of Early Prophetic Tradit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78.
- Effa, Allan L., “Prophet, Kings, Servants, and Lepers: A Missiological Reading of an Ancient Drama”, *Missiology* 35:3 (2007), 305-313.
- Exell, Joseph S., *I & II Samuel, I & II Kings*, The Biblical Illustrator,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5.
- Hagan, Harry, “Deception as Motif and Theme in 2 Sm 9-20; 1 Kgs 1-2”, *Biblica* 60:3 (1979), 301-326.
- Hartshorne, Charles and Weiss, Paul, eds.,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naders Pierce*, vol. 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 Koehler, Ludwig and Baumgartner, Walt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Study Edition, 2 vols, M. E. J. Richardson, trans., Leiden, Boston, Köln: Brill, 2001.
- Kim, Jean Kyoung, “Reading and Retelling Naaman’s Story (2 Kings 5)”,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0 (2005), 49-61.
- Lasine, Stuart, “‘Go in peace’ or ‘Go to Hell’? Elisha, Naaman and the Meaning of Monotheism in 2 Kings 5”, *Scandinavian Journal of the Old Testament* 25:1 (2011), 3-28.
- Maier III, Walter A., “The Healing of Naaman in Missiological Perspective”, *Concordia Theological Quarterly* 61 (1997), 177-196.
- Ngan, Lai Ling Elizabeth, “2 Kings 5”, *Review & Expositor* 94 (1997), 589-597.
- Nwaoru, Emmanuel O., “The Story of Naaman (2 Kings 5:1-19): Implications for Mission Today”, *Svensk missionstidskrift* 96 (2008), 27-41.
- Rawlinson, G., 『열왕기하(상)』, 풀빛성경주석, 박홍관 역, 대구: 보문출판사, 1990.
- Robinson, *Researches*, vol. ii, 256.
- Rosenberg, Rabbi A. J., *II Kings*, New York: The Judaica Press, 1985.
- Sarvan, G., “1 and 2 Kings”, R. Alter and F. Kermode, eds., *The Literary Guide to the Bibl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 Smith, W. Alan, “Naaman and Elisha: Healing, Wholeness, and the Task of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89 (1994), 205-219.

Wikipedia, “Abductive reasoning”, <https://en.wikipedia.org> (2018.8.31.).

Yates, Gary E., “The Motif of Life and Death in the Elijah-Elisha Narratives and its Theological Significance in 1Kings 17 - 2 Kings 13”, *Faculty Publications and Presentations* (Liberty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nd Graduate School, 2008), Paper 12, accessed 2 July 2018 from <http://digitalcommons.liberty.edu/>.

<Abstract>

**The Servant Motif in Naaman Narrative:
A Lexical, Literary and Theological Analysis**

Jae-Won Lee
(Inha University)

This paper suggests that identifying the true servants could be a theme of Naaman narrative in chapter five of 2 Kings, and that servant motifs are included to support the new theme. The Hebraic terms for servant such as ‘נַעֲרָה קַטְנָה’ (young girl, v. 2), ‘עֲבָדִים’ (the servants of Naaman, v. 13), ‘נַעֲרָה’ (servant, v. 20) and ‘מַלְאָכִים’ (messenger, v. 10) show that each servant is of lower class. The roles of each character of the narrative a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of leading, ancillary, archetype, and agent. Here we argue that roles of both the young girl of Naaman’s wife and his servants correspond to the archetype category, displaying the image of a typically faithful and wise servant. Thus we can conclude that servant motifs exist throughout various roles of the narrative characters. It can be said that the author of the book adds two more episodes to the first one (v. 1-14) with the intention to display various types of servants. Even though the first episode can complete the story, it is continually extended into the second one (v. 15-19) where Naaman shows humility by recognizing himself as “your servant” (v. 15), and into the third episode (v. 20-27) about Gehazi, the servant of deceiving character. Therefore we believe that the extended narrative has the servant motif. The rhetoric structure of the narrative could be chiasmic around the servant motif. ‘Five types of servants’ retrieved from the above analyses focusing on servant motifs give us the insight to explore the hidden theme of the narrative, i.e. identifying the true servants. The true servant wishes and serves the best for his master without seeking any reward like the little girl (v. 2) and the servants of Naaman (v. 13).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lies both in the discovery of ‘servant’ motif and finding the most likely new theme ‘who is the true servant?’ with the help of abductive reasoning. This new theme is in contrast with preceding researches focusing on the healing of Naaman to the effect of demonstrating the power of God, or on the role of the little girl as a means of spreading the Gospel to the gentiles.